

인쇄 · 출판의 국가독점

독서의 풍속사 — 7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시대 인쇄 · 출판을 담당했던 곳은 서적원과 교서관 두곳이었으나 서적원의 활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교서관이 유일한 인쇄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서관 외에 정음청, 책방, 간경도감, 주지도감 등이 조선전기에 서적의 인쇄·출판기관으로 존재했지만, 이들은 모두 임시기관으로 곧 혁파됐다. 조선시대의 인쇄 · 출판은 모두 국가가 독점했고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민간 영역에서 인쇄 · 출판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선의 인쇄 · 출판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내가 가장 당혹스러워했던 것은 금속활자다. 털어놓고 말하자면, 활자에 대한 우리의 찬양이 너무 지나쳐서 정작 따져야 할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물론 금속활자는 중요하다. 금속활자로 찍은 책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유통되지 않은 활자본 한권보다 활발히 유통됐던 목판본 10권이 더 중요하다. 책이란 무엇보다 널리 읽히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금속활자의 존재가 아니라, 인쇄와 출판, 유통의 메커니즘이다. 도대체 누가 인쇄와 출판, 그리고 유통을 맡았는가 하는 문제는 금속활자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 가운데 인쇄와 출판을 장악했던 기관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말했다시피 조선의 인쇄와 출판은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금속활자를 소유한 곳도 오로지 국가였을 뿐이다. 국가가 서적의 출판을 독점했다면, 그 독점을 수행한 기관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었던가?

교서관, 조선시대의 유일한 출판기관

조선 건국 직후 국가의 행정기구가 정해지는데, 여기에 서적의 인쇄 출판을 주관하는 관청이 둘 있었다. 《태조실록》 1년 7월 28일조를 보자.

(1) 서적원(書籍院)은 경적(經籍)을 인출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영(令) 1명 중7품이고, 승(丞) 2명 중8품이고, 녹사(錄事) 2명 중9품이

고, 사리(司吏) 2명이다.

(2) 교서관(校書監)은 문적(文籍) · 도서(圖書)와 제초(祭醮)의 축소(祝疏)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중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중4품이고, 승(丞) 1명 중5품이고, 낭(郎) 2명 정7품이고, 저작랑(著作郎) 2명 정8품이고, 교감(校勘) 2명 정9품이고, 정자(正字) 2명 중9품이다.

서적원은 고려의 관직제도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여기서 다시 간단히 정리해보자. 이것은 원래 고려 문종 때 설치했던 서적원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 뒤 충선왕 때 서적원을 한림원에 병합했다가 뒤에 다시 설치했고, 공양왕 3년에 혁파했다가 1년 뒤인 4년에 서적원으로 개칭해 주자(鑄字)와 서적의 인쇄를 관장하게 했던 것이다. 공양왕 4년은 1392년이고, 곧 조선 태조의 즉위년이다. 따라서 서적원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주지사 서찬이 목활자를 제조해 바침으로써 《대명률직해》 등의 서적을 인쇄한 것 외에 다른 활동은 문헌에 포착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위의 자료 외에는 서적원의 활동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교서관은 고려의 비서성(곧 전교시)을 계승한 것이다. 태종 1년 7월 13일 명칭을 교서관으로 바꾸고, 소감(少監) 이상의 관원을 혁파하고, 중5품 교리(校理) 하나, 중6품 부교리 하나를 두고, 참외(參外)는 전과 같이 했다. 교서관은 그야말로 ‘책을 교정한다’는 뜻이 있는, 책의 출판을 전담하는 조선시대 유일한 관청이었다. 물론 교서관의 임무는 책의 출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교서관은 서적과 상관이 없는 일도 맡았다. 국가의 제사에 쓰이는 향과 축문(祝文)의 관리를 맡았고, 국가의 각종 기관에 쓰이는 인신(印信), 즉 도장의 제작도 교서관의 몫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왜 교서관에서 향과 축문, 도장의 제작을 맡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 나는 아직 그럴 듯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어쨌거나 교서관의 가장 큰 임무는 서적의 간행이었다. 이 부분을 《실록》을 통해 알아보자.

본조에서는 조종조(祖宗朝)를 거치면서 유교를 숭상하고 도리를 중하게 여겨서, 서적을 나라의 중한 보배로 삼아 천하의 책을 모아 응문루(隆文樓) · 용무루(隆武樓)에 간직하여 고열(考閱)에 대비하였습니다. 응문루 · 용무루를 맡은 곳은 본서(本署)에 있으며, 또 책을 인쇄할 때에는 전교관(典校官)이 한쪽에는 정본(正本)을 가지고 한쪽에는 인쇄된 책을 가지고서 글자마다 교정하고 줄마다 검사하여, 글이 빠진 것은 보충하고 글자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편차(編次)하고 장황(粧潢)합니다. 그리하여 성상께서 독서하시는 데에 대비하여 우리 전하로 하여금 제왕(帝王)의 마음가짐과 다스리는 요지를 연구하고 전대의 치란 흥망(治亂興亡)의 원인을 살펴계 하니, 그 직임이 진

실로 가볍지 아니합니다(《성종실록》 14년 12월 23일).

교서감의 가장 큰 임무는 (1) 책을 인쇄할 때 원고와 교정지를 대조해 교정을 보는 것, (2) 경복궁의 용문루와 용무루란 건물에 서적을 수장하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또 각종 서적의 목판을 준비해 원하는 사람에게 인쇄해주는 것도 교서감의 중요한 임무였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서감의 관원은 모두 문신으로 임명했다.

정음청 등 임시 인쇄기관 다양했으나 국가가 인쇄 독점해

흥미로운 것은 의외로 태종에서 단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실록》에서 교서감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자소 때문이 아닌가 한다. 주자소는 문자 그대로 활자를 주조하는 곳이란 뜻이 된다. 또는 활자를 주자라 불렀기 때문에 활자가 있는 곳이란 뜻이 되기도 하다. 서적은 실제로 주자소에서 인쇄했기 때문에 주자소가 펴 비중 있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세조 6년 주자소가 교서감에 합쳐지면서 이후 서적의 인쇄·출판은 오로지 교서감에서 이뤄지게 된다. 세조 6년 이전에 교서감은 출판사, 주자소는 인쇄소에 해당했던 것이다(주자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론하겠다).

주자소 외에 중요한 인쇄기관으로는 정음청(正音廳), 책방(冊房), 간경도감(刊經都監), 주자도감(鑄字都監) 등이 조선전기에 서적의 인쇄, 출판기관으로 존재했다. 정음청은 언문청(諺文廳)이라고 하는데, 세종 25년 한글의 창제를 위해 탄생했으나, 이후 불경을 국역해 인쇄하는 곳이 됐다(단종 원년에 혁파됨). 책방은 세종이 신하들의 비난을 피해 편리하게 대궐 안에서 불경을 찍기 위해 설치한 것이었는데, 신하들의 줄기찬 비판으로 단종 3년에 혁파됐다. 간경도감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세조 7년 불경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진 인쇄와 출판이 주류가 되었던 적은 없었다. 이 현상은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민간에서 생겨나고, 이에 의한 인쇄·출판이 애시당초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했던 것과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는 서양의 인쇄·출판과 조선의 인쇄·출판의 결정적인 차이를 국가/민간의 대립에서 찾는다.”

의 국역과 불교서적의 간행을 위해 만든 곳이다. 역시 신하들의 반대로 성종 2년에 혁파됐다. 주자도감은 중종 10년 11월 2일 홍문관 부제학 김근사(金謹思)의 건의로 중종이 특별히 만든 관청이다. 따로 주자도감이 필요했던 것은 중종이 연산조를 거치면서 책의 인쇄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교서감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주자도감은 중종 11년 5월 20일 혁파됨).

요약하자면, 조선전기 서적의 인쇄·출판기관으로 서적원, 교서감, 주자소, 정음청, 책방, 간경도감, 주자도감 등이 있었다. 이들 기관들은 활동의 이력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곳(서적원), 주로 불경의 간행을 목적으로 한 곳(정음청, 책방), 임시적으로 존재한 곳(주자도감) 등 다양했으나, 기본적인 속성은 모두 국가 기구였다는 것이다. 조선의 인쇄·출판은 국가나 관청에서 거의 독점했고, 그 나머지 일부를 민간에서 담당했다. 이 현상은 1890년대 말 민간에서 상업성을 표방하는 근대적 출판사가 출현하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다.

18세기여야 민간 영역에서 인쇄·출판업 나타나

물론 조선후기에 민간 영역에서 인쇄·출판업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으로 18세기 어림에 출현한 민간의 상업용 서적, 곧 방각본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민간 부분에서 이뤄진 인쇄와 출판이 주류가 됐던 적은 없었다. 이 현상은 서양에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민간에서 생겨나고, 이에 의한 인쇄·출판이 애당초 상업적 목적으로 출발했던 것과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나는 서양의 인쇄·출판과 조선의 인쇄·출판의 결정적인 차이를 국가/민간의 대립에서 찾는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인쇄·출판의 국가 독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서적의 절대 다수를 국가에서 인쇄·출판한다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로지 국가에서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지식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는 말이 아닌가? 독점이란 것은 어느 쪽으로 봐도 좋지 않은 것이다. ■



조선의 인쇄와 출판은 거의 국가가 독점했다. 금속활자도 오로지 국가가 소유했다. 사진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인쇄된 책들.